

COMMISSIONERS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물결운동' 행사 개최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운동추진 협의회 이사장)은 10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물결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국민들의 진정성 있는 관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가해학생의 처벌과 교사의 책임을 강화한 '왕따방지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장학금 전달식'으로 총장 임기 마무리



박남기 위원(광주중재부, 광주교육대 교육학과 교수)은 4년간의 광주교육대 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10월 22일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임식은 장학금을 받았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다시 장학금을 기증하는 '릴레이 장학금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박 위원은 1993년 광주교육대에 임용돼 2008년 제5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변호사 피습사건 관련 기자회견



강행욱 위원(광주중재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0월 16일 사건 의뢰인의 변호사 흥기테러 사건의 경위 및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위원은 15일에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합법적 갈등 해결 방법을 무시한 채 흥기를 사용한 테러행위"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조정에 대한 교육과 관심 강조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10월 11일자 법률신문에 '조정에 대한 교육과 관심'으로 대안을 찾아야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위 위원은 "소송과 달리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조인도 조정기법을 익히는 등 조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청주지역 이주여성과 가을 나들이



권영애 위원(충북중재부, 청주문화원 사무국장)은 10월 17일 청주예향로 타리클럽 회장으로서 '결혼 이주여성 친정언니 되어주기' 행사를 열었으며, 청주지역 이주여성 및 자녀 30여 명을 초청해 전북 부안 채석강과 내소사 등을 둘러보았다. 권 위원은 "이주여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이들이 사회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게이오대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참석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10월 4~6일 한국정치학회와 일본 게이오대학이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주제 : 한·중·일 관계와 동북아질서)에 참석했다. 양국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국교정상화 방향과 향후 동아시아 질서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일 한국대사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